



광남일보



전남개발공사, 영광 해상풍력 발전 개시
장충모 사장 “전남 1호 공공주도...청정에너지 공급”

4



화순적벽 절경 감상...버스 타고 쉽게 간다
11월까지 ‘버스투어’ 운영...1일 최대 7회

8



영암, 숙련노동자·정주인구 모두 잡는다
지역특화형 비자 활용...외국인 이주노동자 확보

10



‘복귀 임박’ KIA 김도영, 순위 판도 바꿀까
첫 실전 2타수 1안타...이르면 LG전 콜업

12

조간 제7830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음력 3월 2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권영진·강대식 국회의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강기정 광주시장, 영부남·안도걸·정준호·민형배 국회의원.

부산에 ‘해수부’·충청에 ‘세종시대’...광주·전남은?

시중심도시·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

선력! 대선 D-40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당의 핵심지지기반인 호남 지역민의 표심을 공략할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4·5면

지난주 영남권 경선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실현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이전을 내걸었고, 충청권 경선에서는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이전해 ‘세종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연 산업화에 뒤처지고 지역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호남을 살리는 어떤 처방이 나올지 지역민들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는 23일 광주·전남·전북지역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를 개시하는 등 호남권 순회 경선에 본격 돌입했다.

오는 26일까지 나흘 동안의 투표 결과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후보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된다.

경선에 뛰어난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에도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앞당겨 지역을 방문하거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집중 레이스를

민주당 호남 경선 돌입...각 후보 핵심 공약에 관심
5·18헌법 수록·국립의대 신설 등 확실한 공약 절실

펼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과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다.

이 후보가 경선 일정 중 1박을 하면서 한 지역을 순회하는 것은 이번이 유일해 호남 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24일에는 전북에서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뒤 광주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이튿날에는 나주에 있는 전남도 농업기술원을 찾아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이라는 주제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연다.

천명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패한 데 대해 당시 호남의 득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만큼은 득표율을 더 끌어올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선에서부터 표심 결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에서 역전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24일 전북에서 시작해 광주와 전남을 방문하는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과 대의원은 90만명이 넘는다. 야구로 얘기하면 이제 2회 지났다. 야구에서는 8회에 역전을 하는 경우도 많아 ‘약속의 8회’라고든 얘기한다. 8회에 뒤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SBS라디오에서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22일 호남 공약을 발표했다. 서해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라인 집중투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 명칭변경, 호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다.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과 2036년 전주 올림픽 유치 지원 등도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한 후 광주로 이동해 양동시장을 방문한 후 광주시장에서 당원들과 만났다.

호남 공약으로는 자신의 공약인 ‘권역

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과 관련해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치정부 자율예산 지원을 통해 ‘호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전북도당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 5+3 체제로 묶어 최소한(이들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 1년에 30조원 정도를 쥐어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고향이 목포라며 ‘호남의 상위’를 강조하는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약이 지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영남엔 해수부를 이전시키고, 충청엔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전해 세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호남 공약은 기존 사업계획을 확대 재생산하는 수준”이라며 “민주당을 수십 년을 한결같이 지지해온 지역민들에게 획기적이고 확실한 공약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2면에 계속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달빛철도 건설...광주-대구 ‘맞손’

양 지자체·국회의원들 “예타 면제 확정” 촉구

후속 행정절차 이행 요구 “범정부적 지원·협조”

1800만 영호남의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광주·대구가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강기정 시장, 김정기 권한대행,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유영하·윤재욱·이인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주호영·추경호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은 지난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의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해를 넘기며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역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이 지금껏 국

토를 세로축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누적된 불통과 불균형을 넘어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라는 분명한 공감대를 이뤄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 도시는 “영호남의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달빛철도’가 1년이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의 책상 위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양 도시는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라는데, 이는 심각한 오관”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 도시는 “영호남 상생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로 총연장 198.8km에 달한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내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호추니엔 선임

싱가포르서 작가 겸 기획자
새로운 흐름 반영 기획 기대



2026년 9월 열릴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싱가포르의 시각예술가 겸 기획자인 호추니엔(사진)이 선임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23일 아시아의 근대성을 탐구해온 호추니엔을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호추니엔 예술감독은 ‘예술의 힘’과 이를 통한 ‘변화’를 통해 위기의 시대

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재한 동력을 일깨우고 광주비엔날레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오는 데 있어 책임자로 판단됐다는 설명이다.

호추니엔 예술감독은 ‘2018 제12회 광주비엔날레’와 ‘2021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때 광주와 인연을 맺었으며, 그동안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영화 감독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홈페이지 웹툰 등 교육·홍보용으로 활용 가능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만화로 재밌게 배운다!

역사 문화 관광 스토리텔링 형상화사업

어렵게 느껴지는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안내판**으로 제작하여 우리지역에 있는 역사·문화·관광명소를 지역주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QR코드로 쉽고 빠르고 즐겁게!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나레이션된 영상을 QR코드로 만화게시판에 설치하여, 역사·문화관광지를 찾는 수많은 국내외 내방객들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국문QR



영문QR

QR코드를 찍으시면 유튜브를 통해 만화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문의 STORY BRIDGE 스토리브릿지 062-521-7779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story01920@naver.com